

정토마을

2015 여름호
www.jungtoh.org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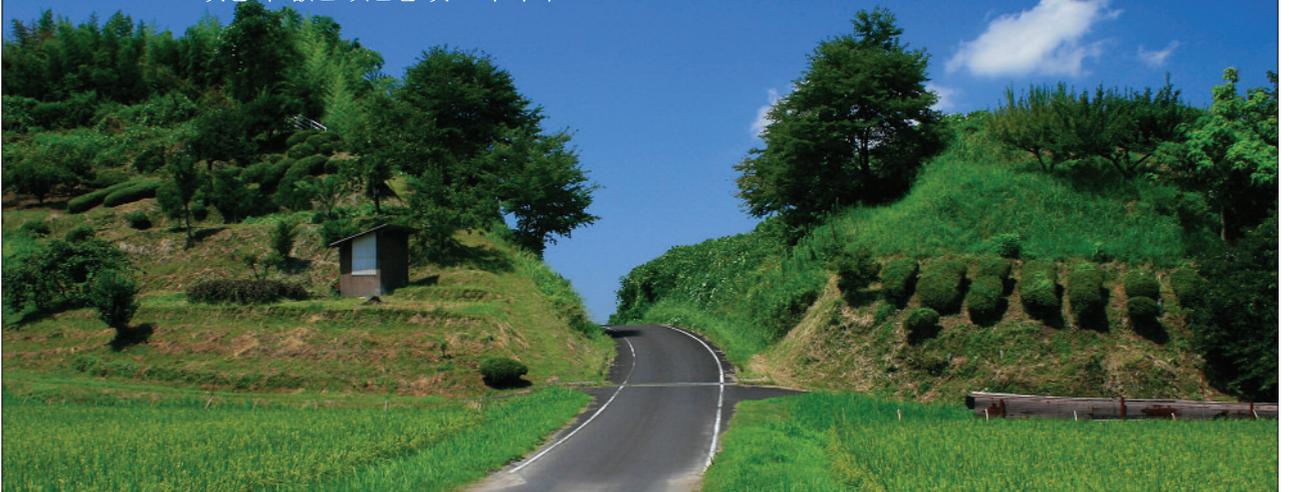
누구든 떠나갈 때는

- 류시화

누구든 떠나갈 때는
날이 흐린 날을 피해서 가자
봄이 아니라도
저 빛 눈부서 하며 가자

누구든 떠나갈 때는
우리 함께 부르던 노래
우리 나누었던 말
강에 버리고 가자
그 말과 노래 세상을 적시도록
때로 용서하지 못하고
작별의 말조차 잊은 채로
우리는 떠나왔네
한번 떠난 길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네

누구든 떠나갈 때는
나무들 사이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가자
지는 해 노을 속에
잊을 수 없는 것들을 잊으며 가자



COTENTS

- 04 **행복한 인사**
늘 푸르른 보리심의 나무
- 08 **초대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힘, 나눔
- 10 **법화경이야기**
해인정사 주지 수진스님
- 14 **자애명상**
종립적인 대상
- 17 **힐링이야기**
인과 · 윤회 · 연기
- 18 **마하치유방송국**
2천원의 행복, 정토마을에 '나만의 꽃밭만들기'
- 20 **음식으로 찾는 힐링**
절집의 특별한 나물 고수
- 22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아빠에게
- 26 **정토초대석**
10년 불사의 꽃 정념회를 위하여



- 28 **현장이야기1**
꽃보다 10대
- 31 **현장이야기2**
서울국제불교박람회
- 34 **명상카툰**
무심
- 35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새털처럼 가벼운 인생
- 38 **테마가 있는여행**
강원도 양구 두타연과 두타사지
- 41 **정토마을행복공동체 소식**
- 44 **Who? One!**
- 48 **자원봉사자소식, 봉사자모집**
- 50 **보살도**
- 53 **다른그림찾기**
- 54 **광고**

JUNGTOH | 여름호 통권 107호 |

발행처 (재)정토사관자재회 **발행일** 2015년 6월 10일 **발행 · 편집인** 능행 등록울산바01004 (2008. 4. 11) **편집위원** 배성권
민대식 임주은 **사진** 편집부 **정토마을**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052-255-8588) **정토마을(청원)**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1 (043-298-2258) **마하보디교육원**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052-255-8520) **디자인** 편집 맑은소리
맑은나라 (051-255-0263) **제작** (재)정토사관자재회 | 비매품

늘 푸르른 보리심의 나무

“ 보리심이란 무량한 허공과 같이 무한한 중생들을
그 중생들 모두 나의 부모처럼 보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 생
각 자체는 한계가 없고, 선업은 끝이 없다 ”



능행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이사장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수희 찬탄하면서 함께 연등을 밝히고 정토마을을 마음에 담아 먼 길 다녀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허공같이 담아 전합니다.

정토마을 소식지에 인천(人天)의 스승이신 달라이라마존자님의 강의를 담아 보내오니, 천천히 읽어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보리심이 자라나도록 정진하기를 초대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인연이 다하면 우리의 몸은 속절없이 티끌 하나도 움켜쥐지 못하고 떠납니다. 인간의 한평생이 무상하단 말조차도 붙일 수 없는 무상한 중생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간다면 세상 떠날 때 보다 덜 서운할까 생각해보니, 남을 이익되게 하는 선업밖엔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지난 2주간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과 인연된 8명의 사람들이 몸을 놓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정토마을 가족 여러분!

우리 살아 있는 날들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일과 다른 이들이 행복해지는 일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입보리행론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

보리심을 일으키면 성불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력만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짐은 물론 인생 자체가 의미 있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고통이라는 이름마저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리심은 궁극적으로 성불의 일체증지를 증득할 수 있는 인과의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량한 세월 동안 깊은 사유를 행하신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보리심의 유익함을 보시고, 이것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아주 쉽게 궁극의 안락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생들은 고통을 여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고통 자체로 내달리고, 안락을 원하지만 무지로 인해 스스로 자기 안락을 원수처럼 부수어 버립니다. 축생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바라며 불행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번뇌의 힘에 의해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한 가지 번뇌를 간신히 조복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번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고통 속으로 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내고 화를 내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를 냈으므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 더욱 더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원인 때문에 또 다른 업을 짓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탐욕과 욕심을 내다보면 이것쯤이야 내가 취해도 되지 않는가, 욕심을 좀 내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고 자신을 합리화 시킵니다. 탐욕으로 인해 또 다른 업을 짓게 되

는 그런 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자만을 가져도 된다는 자만심과 이 정도라면 관찮지 않나 하는 자신을 북돋아 주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질투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질투심을 내게 되면 누가 뒤에서 등을 떠미는 것처럼 더욱 더 질투의 힘이 커지고, 더욱 더 그 마음을 크게 일으켜 주는 번뇌의 도우미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경쟁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경쟁하는 라이벌 의식을 가지게 되면 더 정진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들은 번뇌가 번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악업에 의해 고통으로 내달리게 되는데 그런 악업의 힘에 의해 번뇌가 번뇌를 낳아 오히려 우리를 더 고통 자체로 내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보리심을 일으키고 난 후 자신이 악업과 번뇌로 인해서 고통 받은 경험들을 잘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아집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업의 뿌리는 바로 아집과 악연이라고 했습니다.

입보리행론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12

보리심이란 무량한 허공과 같이 무한한 중생들을 그 중생들 모두 나의 부모처럼 보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는 한계가 없고, 선업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간에 한계가 있는 선업의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쌓게 되면 그 과보가 한 번으로 끝이 나지만, 보리심의 나무는 항상 푸르러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으며 잘 커나갑니다.

보 리 심 기 도 문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며,

무지무명으로 지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진정으로 참회하며,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보리심을 일구며, 세세생생 보살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참회진언 :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3)

발보리심 진언 : 옴 보디지땀 우뜨 빠다야미 (3)

원하옵나니,

이러한 공덕이 일체에 두루 하여

나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을 뵈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정토마을 후원 가족들과 저희들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귀의하여 배우고 선업을 닦아서 나의 생각 가는대로 착각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며,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나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을 가난하고 인색하게 내지 않을 것이며, 내가 바르게 노력한 만큼 필요한 것을 적절히 취할 것입니다.”는 서원의 기도를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정토마을 후원 가족 여러분들과 봉사자 여러분의 선업을 수희 찬탄하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기쁨 그리고 지구가족 모두에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뜰에서 기원 드립니다. 卍

초대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힘, 나눔

황규인
교남소망의 집 원장



1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졌고, 그 호소도 더 커지고 있다. 나눔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흔히 ‘카오스 이론’을 든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또한 나눔이 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테레사 효과’로 이야기 한다. 타인에 대한 봉사를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신체 내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물질 Ig A가 향상되는 것을 두고 이름을 붙인 것이 ‘테레사 효과’이다. 나눔의 정서적인 유익과 더불어 나눔이 육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힘을 말하는 것인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이다.

공감에서 우리나는 지극한 나눔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당면한 문제가 해소되거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진다. 나눔이 주는 선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 주변에 전염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소득으로 이어진다.

이제 나눔은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다. 마치 단단한 땅을 뚫기 위해 온갖 에너지를 모으는 씨앗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햇볕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늘진 곳이 많은 것은 나눔의 양이 채워지지 않아서일 것이다. 나눔의 양을 채우고 희망을 일구어내려면 먼저 나눔에 대한 큰 오해 하나를 풀어야할 것 같다. 그것은 “나는 나눔 게 없다”는 것이다. 이 오해는 시간, 기술, 재능, 미소.....다양한 나눔 꺼리들을 물질로 한정했을 때 갖게 되는 오해이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면 “나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돌아놓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병상에서 지내는 장애인의 미소가 삶을 포기하려고 거리를 배회하던 한 가장을 일터와 가정으로 돌려보냈다.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도 나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천 원짜리 한 장이 그렇다. 종이 돈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 천 원짜리 한 장이 갖는 비밀이다. 오랜만에 입으려던 옷 주머니에서 값어치와 상관없이 여유를 주는, 귀여운 꼬마에게 언제라도 내어 줄 수 있는 과자값, 있어도 되고 굳이 없다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 천 원짜리가 모여서 장애인 40여 명의 일자리가 마련되었고, 그곳에서 소박한 꿈을 펼치는 축복의 터가 되었다. 이런 결과들은 다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할 것은 진정한 나눔의 요소이다. 나눔이 희망이 되고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손을 잡는 공감과 관심이 필요하다.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과제는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해결되었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발짝 뻗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점진적인 과정을 바라보는 관심이야.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 스스로 달라지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읽어주면서 시련의 날에 희망을 품고 지날 수 있도록 바라보는 것이다.

나눔에 있어서 짊고 가야 할 것이 있다. 나눔이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양보해야하거나 자기 생각을 굽혀야 하고, 고귀한 허비로 비어지는 지갑을 채우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슬픔을 나눠야할 사람들이 많다. 가슴속 깊은 곳에 나눔의 실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엮어낼 수 있다.

나눔은 물질만이 아니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힘임을 기억하고, 절고운 희망 한 자락 건네는 봄이기를 빌어본다. ㅍ



수진스님의 법화경 이야기

글 · 정리 편집실

정토마을은 지난해부터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큰스님들을 법사로 초청하여 법화산림 고승초청 천일기도 대법회를 봉행하며, 묘법연화경을 함께 독송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3월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스님을 초청하여 묘법연화경 중 제15품 종지용출품과 제16품 여래수량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추려 실어본다.

1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자애 사랑 용서 화해를 전제로 모든 것이 본래로 무여하다고 말씀하신 경전이다. 세상의 모든 모습이 요란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고요한 것이다. 이것이 법화경의 골수이다. 우리가 이러한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름답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하고, 슬프고 그리고 슬프지 못함의 양면적 현실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게 되어 슬픔도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법화의 골수는 고요애로 돌아가는 것이다.

수많은 법화경 말씀이 있어도 “모든 법이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고요하고 고상한 상이라 불자가 이 도리를 실행하면 오는 세상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제법종본래 상자적멸상 불자행도이 내세득작불)”는 이 계승을 벗어날 수 없다.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적멸상이라 사계절의 변화와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잠시일 뿐 삼라만상의 모든 법이 시시각각 변화하지만 그 실체는 고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와 보면 아파하고 환회하는 마음도 잠깐 동안 일어나는 것일 뿐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50대 시절에 하신 말씀이라면,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8년 전인 70대 시절에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에서의 말씀과는 달리 모든 것을 용서 화해 사랑 자비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컨대 금강경에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면,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해도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욕을 하고 살인을 하고 부처님을 짓밟아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부처의 가슴속에서 바라보면 그런 사람도 부처가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제바달다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다.

법화경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 불교의 안에서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깨달음의 여정을 험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히 법화경을 한번 읽기만 해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서사하는 사람의 옆에만 있어도 부처가 된다고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법화경에서 보면 고요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본래 고요한 것이며, 보여지는 모습들은 실체가 아니고 모두 가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만 한다면 고요의 세계, 즉 부처님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법화경의 제15품은 종지용출품이다.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땅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솟아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세계에서 온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법화경을 수지독송하여 서사해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했

다.

부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이 사바세계는 육만 항하사보살이 이미 있고, 이 육만 항하사보살에게는 각각 육만 항하사 권속들이 있어서 그들이 범화경을 설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땅이 갈라지면서 황금 빛의 육만 항하사보살들이 땅속에서 올라왔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보살들을 이미 과거에 제도하셨다고 하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심한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한생만 보고 있지만 눈이 열리면 삼생을 하나로 보는데, 이 보살들은 이미 모두 부처님의 제도를 받은 존재들이라 그러셨다.

중생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없다고 말하지만, 눈을 감았다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듯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 눈앞에 본 적이 없다고 없어진 게 아니며, 사바세계에서는 육만 항하사보살들을 처음 보지만 부처님께서 이미 구원겁 전에 그들을 보았고 교화하였던 것이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자의 세계는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고, 생사가 고요하여 생사열반이 없다. 우리에게 생사열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자는 생사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의학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갈무리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이 말씀으로 법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처님 법에는 생사가 없다고 했다. 우리가 영영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가. 육체는 죽어도 마음은 죽지 않아서 옷을 벗고 떠날 뿐이다. 우리가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때가 되면 또 태어나는 것이고, 육체는 죽어도 마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바세계에 와서 인연을 잘못 만나서 몸이 조금 아플 수도 있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이 다해서 떠난다하더라도 죽은 것은 아니고 또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범화경의 제16품은 여래수량품이다. 여래의 수명은 한량이 없어서, 부처님은 구원겁 전부터 중생과 보살들을 제도하며 살아계셨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여래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다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삶과 죽음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부

처님께서서는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준다.

타국에 갔던 의사인 아버지가 아들들이 독약을 먹어 뒹굴고 있으므로 약을 처방해준다. 그러나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해독약을 주며 먹으라고 권하여도 횡설수설하며 의심하여 먹지를 않았고, 그 아버지는 다시 타국으로 떠난 후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방법으로써 아들들에게 해독약을 먹게 한다. 이 비유에서 아들들은 중생이며, 그 아버지는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다. 먹고 먹지 않음은 환자인 아들들의 뜻이듯, 부처님 역시 49년 동안 많은 설법을 하셨지만 제도 받은 이도 있고 제도 받지 못한 이도 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다가가면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죽음과 삶은 하나로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마치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잠시 자리를 바꿀 뿐인 것이다. 고요를 알고 부처님께 다가가면 결코 우리들은 아프지 않으며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다. 생은 모든 것이 고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픔과 아프지 아니함을 초월해서 한 순간이라도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다. 卍



아홉번째 이야기

자애명상 3단계 - 중립적인 대상

김재성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교학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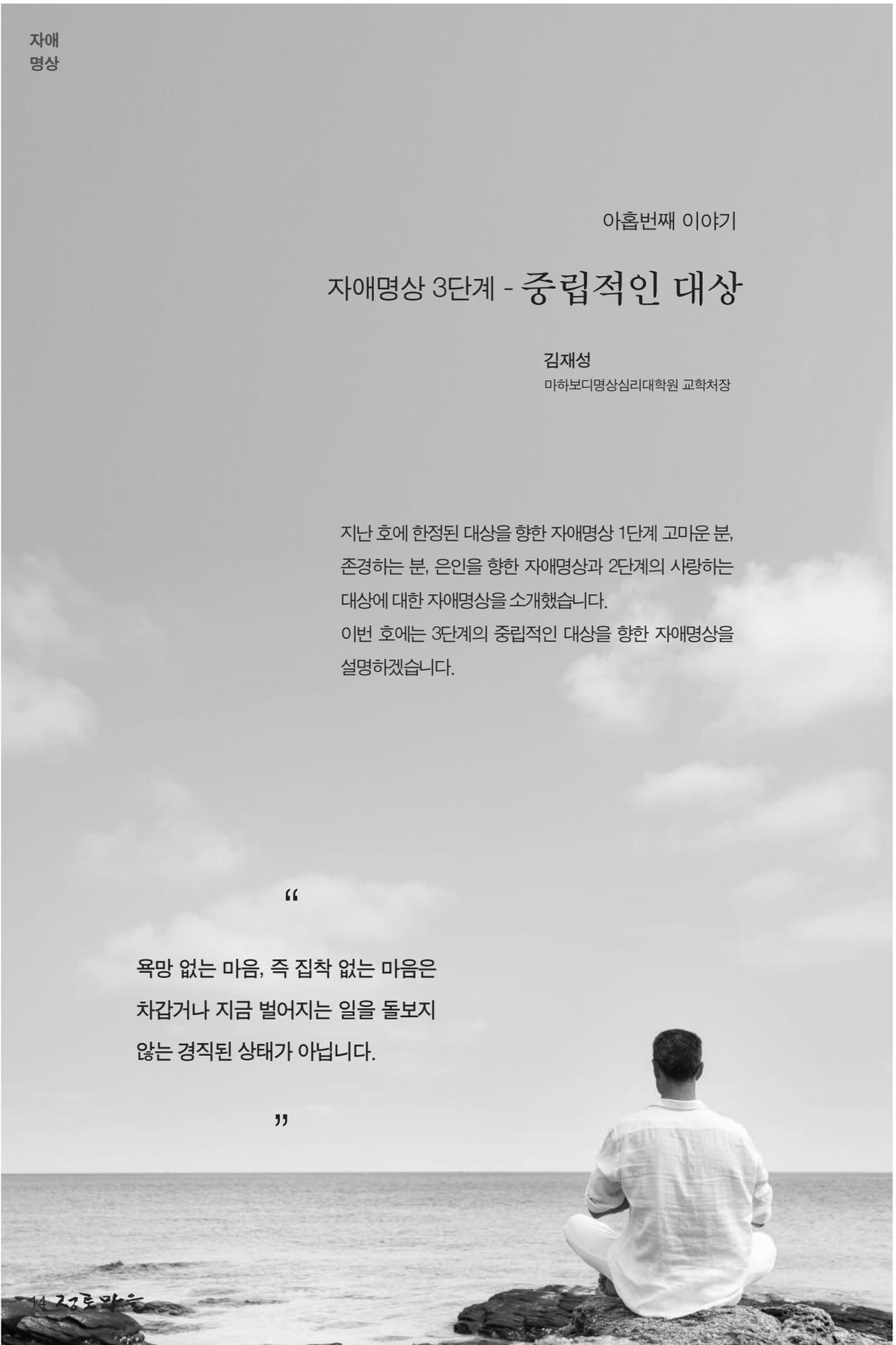
지난 호에 한정된 대상을 향한 자애명상 1단계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인을 향한 자애명상과 2단계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자애명상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3단계의 중립적인 대상을 향한 자애명상을
설명하겠습니다.

“

욕망 없는 마음, 즉 집착 없는 마음은
차갑거나 지금 벌어지는 일을 돌보지
않는 경직된 상태가 아닙니다.

”



중립적인 대상에 대한 자애명상

한정된 대상을 향한 자애명상의 3단계 중립적인 대상이란, 좋지도 싫지도 않은 사람이나 생명으로서 나오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무관한 대상을 말합니다. 고맙거나 존경하는 분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애심이 길러져서, 어느 정도 자애의 느낌(전율, 편안함, 따스함, 기쁨, 행복 등)을 경험했다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중립적인 대상을 선택해서 자애명상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고마운 대상, 은인, 존경하는 대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꼈던 자애심을 확장해 가면서 중립적인 대상에 대한 마음의 벽, 한계를 부숩니다.

순서는, 먼저 자신을 향한 자애명상(2-3분), 고마운 대상 또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자애명상(5-10분)을 하는데, 이 때 자애의 느낌이 일어난 후에 중립적인 대상을 향해 자애명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을 선택한 후, '내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이 무관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사람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가다듬고 난 후, 중립적인 사람, 무관한 사람 한 사람이나 한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자애명상을 10분 정도 시도합니다.

자애의 마음이 잘 일어나면, 다른 대상으로 바꾸어도 되고, 계속 같은 대상으로 자애심을 더 연습해도 됩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다시 한 번 '이 무관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사람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생각을 일으킨 후, 같은 대상을 향해 한 번 더 시도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도 별 느낌이 없으면 다른 대상으로 바꾸어 봅니다.

모든 존재의 대부분이 중립적인 대상이지만, 한정된 대상으로 중립적인 대상을 선택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호칭을 주어로 삼아서 자애의 문구를 만듭니다.

10분 정도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 보아도 별 느낌이 없으면, 자애명상이 잘 된 대상(고마운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애명상을 5-10분 정도 하여서 자애심을 느낀 후에 다시 중립적인 사람을 향해 시도해 봅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누구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며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하고, '이 무관한 사람도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숙고한 후, 중립적인 대상을 향해 10분 정도 자애명상을 지속해 봅니다. 이처럼 중립적인 사람, 무관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애심을 느낄 때까지 반복해 봅니다. 중립적인 대상을 향한 자애심이 개발되면,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나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하고 안정될 것입니다.

중립적인 사람을 자애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행에 방해가 될 만큼 이 사람들에게 강한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와 똑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어떤 이유도 없으며, 그들의 행복을 시샘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립적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애문구를 그들에게 향합니다.

자애는 그럴듯한 거래조건이나 물물교환에 의존하여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이것저것을 해주겠습니다. 단, 당신이 내 기대에 부합하고 내 요구를 만족시켜준다면.” 이렇게 흥정하는 마음이 바닥에 깔린 사랑의 감정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한된 사랑은 욕망과 집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욕망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자애를 갖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각적 욕망을 자애의 ‘가까운 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가 드러날 때까지는, 욕망은 자애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자애인 척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애는 열려 있고 자유롭게 내어줍니다. 자애는 나와 남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애는 조절하거나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애는 배신과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애는 욕망 없는 마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욕망 없는 마음, 즉 집착 없는 마음은 차갑거나 지금 벌어지는 일을 돌보지 않는 경직된 상태가 아닙니다. 집착의 반대는 집착의 대상에 대해 마음이 기분 나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관심한 태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충만해 있고, 생생하며, 활짝 열려 있습니다.

중립적인 대상의 예는 아파트나 회사의 경비, 동네 슈퍼 주인, 세탁소 주인, 자주 가는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 버스나 지하철에 동승한 승객들 등 일상생활에서 만나지만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생명입니다. 卍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www.mahamp.or.kr
689-823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양동리 138-1)
T. 052-252-8511 F. 052-264-0209 Cell:010-6591-0108
E. metta4u@empal.com 명상의 집, 자애(<http://cafe.daum.net/mettaa>)

인과 · 윤회 · 연기

어느 때,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 도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절, 부모이었을 것입니다.

인과이고 윤회이며 연기입니다.
스승과 제자로 만나는 일과
탁마도반으로 만나는 일,
부모와 자식의 연으로
만나는 일에는 그 범주를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잘난 자식을 두어 자랑이 되어도
못난 부모를 두어 자랑 삼지 않아도
부모를 통해 세상을 만나는 이치는
누구든 비껴가지 못합니다.

정토에는 마음이 아파도 웃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토에는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인연입니다.

그런 정토 가족들,
우리의 지중한 인연 또한
연기이며 윤회이고 인과일 것입니다.
오늘, 이곳의 당신이 고맙습니다.



2천원의 행복 정토마을에 ‘나만의 꽃밭 만들기’

이지혜
마하치유방송실

마하치유방송실 주최로 2015년 4월 3일 금요일부터 5일 일요일까지 3일간 식목일을 맞이하여 환우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나만의 꽃밭 만들기’를 시행하였다.

나는 어떤 꽃을 심을까!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1층 로비에 꽃들이 피었다. 식목일을 맞이하여 환우, 보호자, 직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나만의 꽃밭 만들기’ 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1층 로비에 공고 게시판을 걸었다. 오며가며 호기심 가득한 동그란 눈으로 꽃이 활짝 피어있는 게시판 앞에 멈춘다. 한참을 보다가 펜을 들고 또 한 번 멈춘다. 이번엔 어떤 꽃을 심을지에 대한 고민의 멈춤이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펜으로 꽃 한 송이(신청자 접수지)에 자신의 이름과 희망 꽃을 적으신다.

꽃은 이제 꽃이 아니다!

잊혀 지지 않는 하나의 추억이다. 2015년 4월 3일 금요일부터 5일 일요일까지 3일간 병원 외곽 화단이 시끌벅적하다.

“엄마, 꽃을 어느 밭에다가 심을까요?”

“할머니, 어떤 꽃이 마음에 드세요?”

“우리 꽃밭의 이름은 뭐가 좋을까?”

이 밭 저 밭에서 가족회의가 벌어졌다. 밭은 어느 위치가 좋은지, 꽃들은 어떤 배열로 심을 것인지, 꽃이 피면 어떤 색이 되는지, 꽃밭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이 좋은지, 오고 가는 대화가 쉬지를 않는다. 오고 가는 마음이 쉬지를 않는다. 서로의 입가에 웃음이 쉬지를 않는다.

이제 심어진 꽃은 그냥 꽃이 아니다. 우리 할머니의 꽃이고, 우리 엄마의 꽃이고, 우리 손녀 손자의 꽃이다. 우리의 꽃이 심어진 밭은 이제 그냥 꽃밭이 아닌 우리 꽃밭이다.

haunting memories |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어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영적돌봄연구실의 환우와 보호자, 사별가족의 영적돌봄의 매개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만의 꽃밭’ 사진콘테스트, 사생대회, 시 쓰기, 편지 쓰기 등 계절별 상황별 관련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돌봄을 할 예정이다. 卍



●
 꽃밭을 구분할 돌을 주웠다.
 검은 비닐봉지 몇 장을 구멍을 내고서야
 돌이 무겁구나하고 쌀 포대자루로 바꿨다.



●
 밭을 꾸미기 위해 울산 옹기마을에 가서
 깨진 옹기를 얻어오기도 했다.



●
 밭이 서서히 얼굴을 내민다.



●
 꽃밭이 주인을 만나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잊혀지지 않는 추억의 장소가 된다.



| 꽃밭 만들기에 후원해 주신 분들 |

울산옹기마을 옹기골도예, 문군자, 임경숙, 서차선, 김정미

| 꽃밭 만들기에 동참해 주신 분들 |

영적돌봄연구실 총무 법희스님, 정토마을 지객 선경스님, 정토마을 사무국장 배성권,
 임상병리실장 박샛별, 원무부 이예린, 사회복지사 김은구, 영적돌봄연구실 간사 이지
 혜, 워드회원 김계숙



절집의 특별한 나물, 고수 고수나물 걸절이

연호, 만옥

“노스님! 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게 무슨 소리고? 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꼬?”

“꼬리꼬리하면서 하여간에 냄새가 이상해요.”

“어데 가보자.” “내는 또 머라꼬. 저기 고수나물 냄새 아이가.”

“고수나물이라고요?”

고수 질집의 특별한 나물

고수는 지중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한나라 때 장건이 들여왔다고 전해지는데요, 고수의 이상한 냄새 때문에 도가에서는 이를 오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수나물의 성질은 맵고 따뜻하며, 소화기능의 향상과 정신집중에 도움이 되어 예부터 스님들이 좋아하는 나물 중 하나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쌀국수나 육류, 어류 등의 요리에 우리나라 파, 마늘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고수나물은 독특한 향 때문에 호(好)불호(不好)가 확연한 채소이지요. 완강히 거부하던 사람들도 한두 번 먹다보면 중독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고수의 효능으로는 위염에 효과적이고 위통을 감소하며, 체내 독소를 풀어주며 또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칼슘, 칼륨, 비타민 B1, B2, C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입맛을 돋우어주어 여름철 더위로 인한 식욕감퇴를 억제해 주는 고수나물 곁절이를 만들어 볼까요? ㄸ



고수나물 곁절이

재료 : 고수, 양념장(고춧가루, 설탕, 식초, 매실액, 참기름, 통깨)

- ① 씻은 고수를 먹기 좋게 자른다.
- ② 양념장을 넣고 잘 버무린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아빠에게

이효영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자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마음 속에 계신, 온 우주에 가득한 우리 아빠..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도록 허락해주세요.

”

아빠! 이제는 허공에 대고 부를 수밖에 없네요.

아빠가 약속한 바닷가 마을에 잘 가셨어요?

너무 힘든 여정을 잘 견디고 준비도 잘하시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동안 서서히 저에게 스며들었어요.

그것을 아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이루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빠, 아빠는 많이 힘드셨지만, 아빠의 따뜻한 가슴, 두 손 저에게는 너무 큰 선물이었어요.

아빠를 느낄 수 있었고, 아빠의 마음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소중했는지...

제가 그동안 너무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제가 서운하게 했던 행동, 말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크나큰 사랑을 만난 뒤로 매일매일 행복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빠의 맑은 눈, 고운 손, 발 제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너무 고운 심성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귀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자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엄마에게 전해들은 아빠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버지의 바람처럼 바르게 잘살
겠습니다. 효영이의 아빠로 곁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빠의 딸이어서 너무 행복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제 마음 속에 계신, 온 우주에 가득

한 우리 아빠. 믿겨지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빠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울더라도 그리움을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아빠는 심성이 곱고 착한 분이니 저희의 마음속에서 늘 계실 거예요. 바닷가 마을에 예쁜 집 짓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반겨주세요. 아빠의 바람이니 꼭 그렇게 될 것이고, 저희 또한 나중에 아빠 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도록 허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빠가 너무 사랑하는 딸 효영 올림.

아빠. 어느 덧 아빠와 이별한지도 49일 하고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빠가 약속한 바닷가 마을에 잘 가셨어요? 그 곳에서는 편안하세요?

저희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집 짓고 계세요?

저는 지금도 아빠를 생각하니 눈가에 눈물이 맺혀요.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빠를 느낄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만났던 아빠의 따뜻한 가슴, 두 손의 온기가 그리워요. 그 따뜻함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지금도 감사하다는 말을 제외하고는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없네요.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가장 행복했고, 제 가슴이 따뜻했고, 말랑말랑한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의 유언대로 아빠의 흔적을 몇 곳에 남겨두었습니다. 비록 나무판으로 이름을 새기지는 못했지만... 엄마, 효영이, 효범이는 아빠가 어디에 계신지 알아요. 효범이는 수목장이 싫다고 해서, 한줌의 흔적은 물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나무가 우거진 우리 집 옆에 있어요.

“

아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움이 약해질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든 슬픈 순간이든 우리는 아빠를 늘 떠올려요.

”

아빠가 떠나가신 뒤로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며 남몰래 훌쩍이셨어요.

지금은 잘 들리지 않고, 아침을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달그락하는 소리로 알람을 대신하지만 말이 예요. 그 훌쩍이는 소리가 제 방에까지 들리면 엄마와 동생 몰래 방에서 훌쩍이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이별하는 어머니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도 마음이 아파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 차례 지나가고 나니, 이제는 일상을

잘 보내고 있지만,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허전한 것은 어찌할 수가 없네요.

이제는 이렇게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 없는 진동이 눈물을 만들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빠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뿐 이에요.

아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움이 약해질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아빠도 아빠가 떠나가면 잊혀 질까 두려워하셨지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든 슬픈 순간이든 우리는 아빠를 늘 떠올려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에 빈자리도 함께 커가는 것 같아요. ‘이별’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집에 도착하면 엄마는 늘 주차하는 나를 기다리며 아빠와 대화를 해요.

“엄마! 뭐했어?”

“응, 아빠랑 이야기, 대화했어. 오늘도 밤공기가 너무 좋구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금세 얼굴 표정이 환해지셨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빠는 무슨 이야기인지 다 듣고 계시겠죠?

아빠가 우리와 약속한 것이 엄마, 효범이, 효영이에게 희망이에요.

그 약속은 저희에게 든든한 버팀목 이에요.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잘 살아보아요.

다시 만나는 날, 나눌 이야기가 많도록 많은 추억도 만들어보아요.

늘 지켜보고 계시는 줄 알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간이 또 흐른 뒤에 저는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때는 아빠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얼마 전 꿈에서 아빠를 찾아갔나 봐요.

아빠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꿈에서 깬 뒤에 아빠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아빠. 아빠가 계신 곳에서 늘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49재를 마치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효영 올림 卍

이효영님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에 입원하셨던 환자입니다. 이번 호 '지금 이순간' 코너에서는 지난 3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며 이효영님이 쓴 편지를 실어봅니다.

10년 불사의 꽃 정념회를 위하여...

송봉관(현목)
초대 정념회 간사, 현 부회장



기억을 떠올리며...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 정념회에 관한 원고를 쓰려니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다.

2005년도이었을 것이다. 큰 태풍과 폭우로 뒷산이 무너져 토사가 건물 안까지 밀려들어온 적이 있다. 지금은 병원 새 건물인데 당시에는 공장건물의 사무동이 있어서 일층은 호스피스 교육장과 숙소로 사용하고 2층은 법당과 집무실 그리고 공양간이 있었다. 그때 거사들이 모여 들어 토사를 며칠에 걸쳐 치웠던 기억이 난다.

대만의 '자제공덕회' 를 모델로 한 정념회...

정념회는 2005년 9월 30일 발족되었다.

원장스님이 당시 늘 다니던 봉사자들을 차 한 잔 하자고하여 많은 분이 저녁에 모여 들었다. 차를 마시다가 모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며 모임을 만들고 회칙을 정하게 되었다. 원장스님은 대만의 '자제공덕회' 를 잘 알고 있었고, '자제공덕회' 를 롤모델로 삼아 그런 봉사단체가 필요하다는 단체를 만들게 된 것이다.



“

지금의 정념회가 있기까지...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충북 청원의 정토마을까지 달려가서도 봉사를 하던 사람들이었다.

부산, 마산, 대구, 울산, 포항 등 각기 사는 곳이 달랐지만 정토마을 홈페이지에서 서로 만나 일이 생기면 달려가고는 하였다.

원장스님이 지금의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 들어선 울산 언양의 병원부지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입을 하였다 보니 늘 힘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멤버들은 청국장이나 메주 등을 만들어 팔아서 이익금을 보태기도 하고, 원장스님은 전국의 큰 행사가 있으면 다른 스님들과 함께 병원 건축에 대한 홍보를 위해 다녔다. 그럴 때는 우리 회원들이 동참하여 스님이 쓰신 책도 판매하고 병원홍보 전단지도 돌리는 방법으로 후원자 발굴을 하기도 하였다. 그 회원들이 모여 지금의 정념회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정토마을 병원의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

정토마을은 앞으로 병원도 증축해야 하고 법당불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다시 팔을 걷어붙여야 되겠다. 하지만 스님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신 것 같다.

”





지금은 정토마을의 모든 건물들이 난방이 되지만 그때는 드럼통에 나무를 넣어 난방을 하였다. 그래서 봄에는 공양간 앞의 텃밭을 일구고, 여름이면 비 피해가 있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였고, 가을이면 뒷산에 올라가 땀감을 구해다가 장작을 만들어 쌓아 놓고, 겨울이면 김장을 하고, 장을 담그고……

한 해에 두 번 정도는 행사가 있었다. 산사음악회며 기공식 등등. 그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하고 다음날 배식과 정리정돈까지 하였다. 매월 둘째 일요일에는 법회를 보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원장스님이 직접 법문을 하였다. 모임 초기에는 회원이 6~70여명 정도 되어서 지금의 교육관이 딱 찼었는데, 병원 건물의 건축이 시작되면서 공사기금을 마련하고자 원장스님은 차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전국을 다니시다 보니 법회를 챙기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의 회원들도 이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다 보니 지금의 활동인원은 크게 많지가 않다.

십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까닭…

십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힘은 남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병원을 짓는다는 생각을 하였기에 꾸준히 이어져온 것이란 생각이 든다. 병원 준공과 개원이란 감격도 잠시 잠깐, 환자가 채워지지 않아 빈 병실이 많다는 소리에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병실이 부족하다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병실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이 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정토마을은 앞으로 병원도 증축해야 하고 법당 불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다시 팔을 걷어붙여야 되겠다. 하지만 스님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신 것 같다. “이제는 병원도 좋지만 아프리카나 물 없는 나라에 우물을 한 개라도 파줄 수 있도록 하자” 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니 부응을 하도록 해야겠다. 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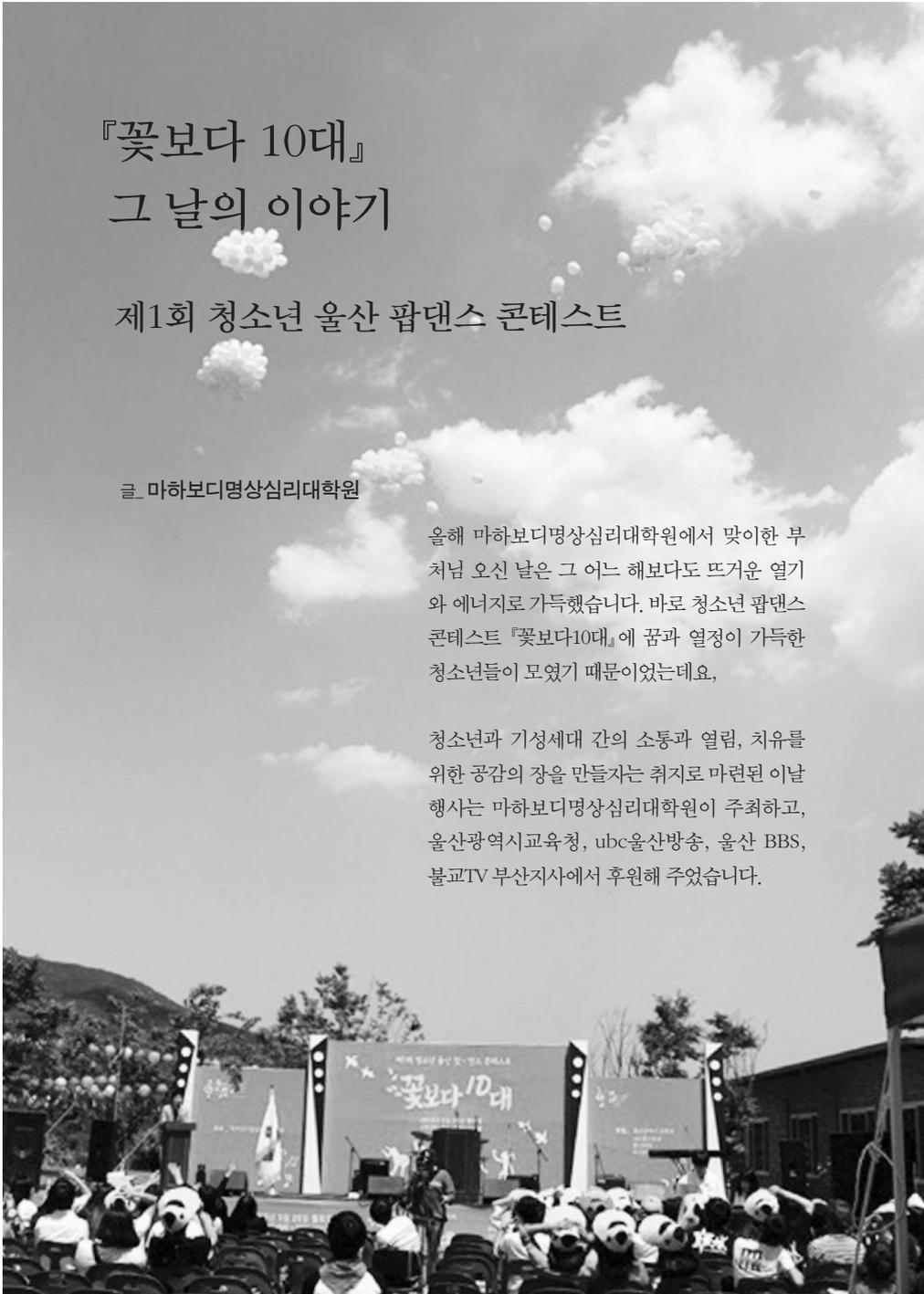
『꽃보다 10대』 그 날의 이야기

제1회 청소년 울산 팝댄스 콘테스트

글_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올해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에서 맞이한 부처님 오신 날은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열기와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청소년 팝댄스 콘테스트 『꽃보다10대』에 꿈과 열정이 가득한 청소년들이 모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소통과 열림, 치유를 위한 공감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이 주최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ubc울산방송, 울산 BBS, 불교TV 부산지사에서 후원해 주었습니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울산의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대회는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 비워내고 싶은 것들을 풍선에 적어서 하늘 위로 날려 보내는 비움 퍼포먼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개회선언과 함께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장 능행스님은 “인류는 언어가 있기 전에 춤으로 소통했습니다. 인류는 언어가 있기 전에 노래로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자연을 통해서 최초의 원시인들이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우주와 소통하고 인간과 소통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그 예술성과 무한한 잠재력에 큰 박수와 지지를 보냅니다.” 하고, 청소년들이 무한한 꿈을 키워내기를 바라는 환영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장열 울주군수, 강길부 국회의원, 울산

광역시 교육청 권미옥 창의인성과장 등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가진 내빈들이 참석하여 꽃보다 아름다운 청소년들의 꿈을 격려하였습니다.

UCC동영상 통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댄스 6팀과 보컬 4팀 모두는 월등한 실력으로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고, 심사하기 어려울 만큼의 치열한 접전이었으나 자신의 무대를 마치고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마지막 심사결과를 정리하는 동안 카이크루 팀의 비보이 공연이 진행되었고, 경연을 마친 청소년들이 모두 하나 되어 공연을 즐겼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동의대학교 명예교수 함도관 교수, ubc울산방송 김태훈 PD, 울산 실용무용연합회 신홍철 이사, 한국춤동작심리상담협회

박선영 협회장께서 자리하여 공정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었습니다.

경연의 최우수상은 울산경의고 댄스팀 '온새미로'가 차지하여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10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지는 우수상은 동천고 밴드 '에이엠'이, 5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지는 장려상은 언양중학교 댄스팀 '아띠'가 수상하였습니다.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나머지 7팀에게는 비전상과 30만원의 장학증서가 각각 전달되었습니다.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의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온새미로는 무대에서 큰절을 올리며 시상의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빛나는 무대의 바깥에서는 땀과 애정으로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연자를 비롯하여 많은 관객들의 점심을 준비해 준 만발공양 봉사자들, 부대행사 부스에서 청

소년 학부모 무료상담소와, 양·한방 의료봉사, 매듭팔찌, 연등 만들기, 컵빙수 냉커피 등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곳곳에서 지원해준 자원봉사자들과, 무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로 댄 스텝과 안전요원들, 그리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코멘트로 경연자들을 격려하고 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들, 그들을 응원하고 축하해주기 위해 공연을 해준 언더독사운드와 카이크루 비보이팀까지...

모두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모여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고 키워 갈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 울산 팝.댄스 콘테스트는 울산의 청소년들이 실력을 겨루고 멋진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매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울산의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卍





서울국제 불교박람회 정겨운 현장이야기

글_ 편집실

매년 불교문화와 산업을 재조명하는 장으로 마련되는 서울국제 불교박람회가 올해는 3월 12일 개최하여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정토마을에서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모금 및 판매 부스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문화 및 산업을 알리는 박람회장에서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의 자재공진단과 산삼경육고를 판매하고 병원의 중환자실 증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락판매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3박 4일의 긴 여정동안 서울 경기지역의 많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님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쾌했던 그 현장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란?

대한불교조계종과 서울특별시에서 공동 주최한 서울국제 불교박람회는 한국 전통문화산업의 중추인 불교문화와 산업을 새롭게 조명하고 산업과 문화, 철학을 담은 한국불교의 총화의 장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년 주최하고 있다. 또한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한국 불교산업을 위한 비즈니스의 장이고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서 한국불교의 다양한 참가업체들의 실질적 성장과 함께 불교산업과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불교 전통문화와 불교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여 서로 교류하며 불교산업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토마을의 활동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은 현재 중환자실의 병상이 부족하여 임종을 앞둔 많은 환우들이 입원을 하지 못하고 아쉬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정토마을에서는 호스피스병동의 중환자실을 증축하고자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 중환자실 증축기금마련 운동'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정토마을에서 행하고 있는 불교호스피스 활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중환자실 증축기금을 마련하고자 '이·떡·고' 도시락과 묵사발, 정토향기 커피를 판매하였고, 자재요양병원에서 직접 만들고 있는 자재공진단과 산삼정육고를 판매하였습니다.

박람회 2일차인 13일에는 능행스님의 '즐거움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 되어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정토마을 부스와 함께 한 사람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정토마을의 많은 후원자님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님들의 노력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토마을 직원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신 기원정사 설봉스님을 비롯하여 3박4일 동안 120명이 넘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분들이 정토마을을 알리고 모금하는 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주셨습니다. 정토마을 부스의 행사를 도와주시기 위해 자원봉사를 자처하신 후원자 한 분 한 분이 없었더라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 머물며 행사를 치러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정토마을의 홍보대사이신 연기자 김혜옥님도 행사 첫날과 이튿날까지 정토마을 부스에서 행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박람회를 마치고...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총 13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토마을의 불교호스피스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정토마을이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지는 행복공동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卍



비취보기

용정운
붓다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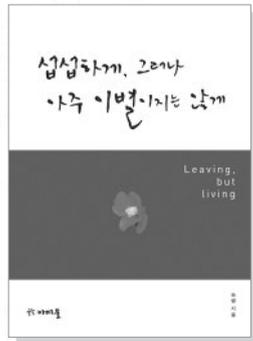
심연 용정운

불교일러스트레이터, 카툰리스트

2012년 불교언론문화상특별상 수상,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으로 2011년 올해의 불서 우수상 수상.

회향 : www.zentoon.com / 이미지보리 : www.imagebori.com 운영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새털처럼 가벼운 인생

능행스님 책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중에서

뒷산 나뭇가지마다 흰 눈꽃이 활짝 피고 정토마을이 한 폭의 겨울 풍경화처럼 눈 속에 묻혀 있던 지난 겨울 어느 날, 앙상하게 마른 몸의 거사님이 정토마을을 찾아 오셨다. 가격을 따질 수 없는 수십 가지의 약, 등산화, 등산복 등을 챙겨 오신 거사님께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물었다.

● 인터넷 보고 왔습니다. 저는 꼭 살아야 하니까요.

거사님의 눈빛엔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넘치다 못해 광기가 흘렀다. 이제 갓 손을 넘긴 나이. 서울 강남에서 자수성가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거사님은 친·인척들에게 사업체를 맡겨 놓은 채 투병 중이었다. 3개월 전에 속이 더부룩하여 병원에 갔다가 위암 말기에 이미 전신으로 암이 전이되어 아무런 치료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복수가 차서 먹지도 못한 탓에 더욱 참혹하였다. 눈 감고 누우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시며 몇 날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계속 토하다 며칠 후 증상 조절이 되었다.

● 스님,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눈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스님, 절 좀 살려주세요. 의사들은 나를 못 살린다고 하는데, 부처님 은덕으로 살 수는 없을까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제가 나아서

일어나면 스님께서 하고 있는 일 열심히 돕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우리 회사는 금방 부도가 날 것이고, 가족들은 거지꼴이 되고 맙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가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거사님은 한 가닥 남은 힘을 다해 분노를 터뜨렸다.

● 어려운 시절 다 넘기고 이제 겨우 살 만하니까 죽어야 한다니요. 내가 벌어놓은 돈 한 푼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집, 빌딩, 회사 어느 것 한 가지도 정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대로 죽습니까?

이불을 움켜쥐고 오열하시던 거사님. 3개월 동안 계속 토하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드시던 분께서 정토마을에 오신 이후 미음도 드시고 과일즙 그리고 떡도 조금씩 씹어 드시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 스님, 목구멍으로 음식을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이처럼 큰 행복이고 기쁨인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사님에게 희망이 되어드리고 힘이 되어 드릴까.

음식을 갖다드릴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기쁨에 행복해하던 거사님은 살아야겠다는 신념과 투지가 강하셨다. 실낱같은 목숨을 쇠줄처럼 여기고 매달리며 살고 싶어했던 거사님의 모습이, 그 의지와 에너지가 아직도 정토마을 어디선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다.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살게 하는 것일까
화들짝 피었다 떨어지는 꽃잎처럼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처럼
바람 앞에 떨고 있는 낙엽처럼
그렇게 잠깐 머물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아차리는 이, 몇이나 될까
텅 빈 허공 속을 뛰어다니며
모으고 움켜쥐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미워하지만
이 세상 모두 환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 몇이나 될까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죽음을 향해 질주하다가
어느 날 문득,
허공에 새털처럼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몇이나 될까.

정토마을에 오신 지 꼭 20일 만에 거사님은 임종하셨다. 임종을 지켜보던 그의 부인은 이게 죽는 것이냐고 소리치며 울부짖었다.

● 왜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까. 왜 돈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되는 세상이 아닌가요. 이렇게는 절대 못 죽습니다.

몸부림치는 가족들을 남겨둔 채, 뜨고 있던 눈을 차마 감지 못하신 채 거사님은 결국 의지하던 실낱같은 생명줄을 놓아버리셨다. 벌어놓았던 돈도, 빌딩도, 회사도, 가족들도 그렇게 모두 두고 떠나버리셨다.

마음을 내면 낼수록 힘겨워지고, 쌓으면 쌓을수록 무거워지는 삶. 무소유의 삶으로 가볍게 머물다가 홀연히 떠나가야 하는 것이 진정 충만한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몇이나 될까. ㅅ



● 이곳 두타연은 금강산 송라암에서 수행정진을 하던 회정선사(1678~1738. 호는 설봉. 강화 정수사 창건)와 관세음보살에 얽힌 사연이 깃든 연못이다. 회정선사는 금강산 송라암에서 천일관음기도를 드리며 매일같이 시식들에 헌식을 하는 등 뜻 생명들에게도 한 치 소홀함이 없는 청정비구였다.

그렇게 천일기도에 진력하던 999일째 되던 날 꿈에 평소 친견하기를 소원하던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의 한 여인은 비구 회정에게 관세음보살이 계신 곳과 친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너무도 상세히 알려준다. “남쪽 양구 땅의 방산 건솔리에 가면 물골옹이라는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을 통해 해명방이라



는 어른을 찾으면 관세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알려 주었다. 회정선사는 송라암을 떠나 보름 후, 양구 땅에 도착했고 꿈에서 일러준 대로 몰골옹을 만났고 다시 몰골옹이 일러준 대로 해명방 어른을 만나게 된다. 첩첩산중에 도착하니 해명방 어른의 딸이 그를 맞았고, 해명방은 자신의 딸과 회정에게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한다.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친견을 위해 기도한 회정선사는 한시도 파계를 해본적이 없는 청정율사였음에도 해명방의 지시대로 딸인 보덕과 부부로 살며 숫장수가 되어 3년 여를 살게 되나, 아무리 기다려도 관세음보살 현신을 마주할 길이 없자, 두 부녀에게 이별을 고하고 몰골옹을 찾아가 사연을 얘기하니, 바로 그 부녀가 보현보살과 관세음보살이었노라 알려준다. 더불어 몰골옹은 문수보살의 화신이었으며, 그리하여 떠나는 집으로 달려가는데 해명방과 보덕

과 같이 살던 집은 오간데 없었으며 다시금 돌아 내려와 몰골옹의 집으로 오니, 몰골옹도 그의 집도 흔적조차 없는 것이었다.

회정은 자신의 우치를 한탄하며 사방을 향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허공을 날아 산 중턱으로 자신을 인도한다.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쫓아가니 관세음보살은 두타연의 굴속으로 사라지고 두건이 벗겨진 관세음보살 형상의 바위만이 그를 맞아 주는 거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바위를 가리켜 관음바위라 부르기 시작했다 한다.

그런 회정은 아쉬움을 안고 금강산 송라암으로 돌아갔다가 관음보살의 현신을 모르고 해매인 스스로를 자책하며 보덕각사에게 사주하고자 했던 거울인 명경대를 찾아 나서는데 그 명경대가 바로 양구 땅에 있음을 알게 된다. 다시금 양구 땅으로 내려와 이곳 두타연 바위굴에서 7일7야를 계족정진으로 일관하며 두타행을 하는데 바로 그때 바위굴(금강산 보덕굴이 전해지고 있으

며 이 굴 또한 보덕굴이라 일컬음이 커다란 명경(거울)으로 변화더니 그 명경 속에 보덕과 자신의 모습이 뚜렷이 비치더라. 그 때가 영조시대이며 바로 그 바위굴 반대편 쪽에 사찰을 창건하게 되는데 명경 속 관세음보살의 형상이 비치어 연못에 투영되었다는 뜻으로 못의 이름을 두타연이라 했으며 사명寺名은 두타사라 이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두타사 터와 두타연이 내려다보이는 산위에 관세음보살이 나투어 두건을 벗어 던진 자리에 관음바위(혹지는 매 바위라 일컫기도 함)가 있으니 이곳 두타사와 두타연의 이야기는 구전이 아닌, 사실에 근접한 이야기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필자는, 몇해 전 복원되었거나 역사적 사료를 분명히 지니고 있는 한반도 이남의 폐사지에 비해 비무장지대 안에 묻혀진 채, 그 실존 여부를 알 수 없는 폐사지를 찾아 답사 길에 올랐다. 안타깝게도 비무장지대에 근접해 있는 두타연과 두타사지가 천혜의 자연경관임에도 불

구하고 방치된 채 세월 속에 잠들어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관음성지에 관한 기록들을 찾던 중 《관음성지를 찾아서, 觀音》-우리출판사-이라는 정만스님의 책 속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했으며 양구 지역의 조계종 사찰인 등운사의 벽상스님이 그에 관한 복원을 위해 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타사지의 복원을 발원하는 벽상스님은 일찍이 그 사실을 알고 두타연의 모습을 옮겨놓은 그림을 대응진 외벽 벽화로 조성해 놓았으며, 양구군 문화재청 관계자와 함께 두타연 계곡의 보존과 두타사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무엇이든 원력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종단에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원력으로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는 불사도 회향한 바 있다. DMZ는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갈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지만 정신세계를 관장하는 불교 성지를 복원, 보존하는 일은 시대의 요청이며 사실을 근거로 한 거룩한 불사가 아닐 수 없다. 卍



수진스님, 우룡스님 초청 법화산림 천일기도

정토마을에서는 매월 4째주 일요일 법화경 독송과 함께 고승을 초청하여 법화산림 천일기도를 봉행한다. 3월엔 수진스님, 4월엔 우룡스님께서 법화경 설법을 해주셨다. 매월 펼쳐지는 환우 및 가족들과 함께하는 간절한 법석이 대덕스님들의 법문으로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참여

정토마을에서는 3월 12일부터 4일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여하여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병동 중환자실 증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먹·고 도시락, 정토향기 커피 판매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병원에서 직접 만드는 자재공진단, 산삼경옥고 등을 판매했다.



염불선 수행 실시

정토마을에서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 염불선 수행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염불선 수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수행하는 방법으로 좋으며 '알아차림'과 '치유'를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태화강연등축제 및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이틀간 울산태화강연등축제에 참여하였다.

『자비의 연등 이어달기』 캠페인 및 오복채움 이벤트 등으로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네팔에 보낼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법요식과 관불의식 등으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다.



제6기 불교호스피스 승려연수교육 실시

지난 4월 6일, 마하보디교육원은 2박3일 일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 30점 인증과정인 '제6기 불교호스피스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총21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18명이 수료한 이번 교육은 불교호스피스의 이해와 불교 임종 의식의 전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입학 및 졸업식

지난 3월 7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2015 학년도 전기 신입생 입학식과 석사 졸업식을 함께 진행하였다. 졸업생 4명은 <이상적 교사로의 자기변형에 관한 연구: 보살도의 훈습을 중심으로>, <자애명상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등을 발표하며 학업을 마무리했다.



제3기 불교임상기도교육 실시

지난 4월 21일, 마하보디교육원은 2박3일 일정으로 제3기 불교임상기도교육을 실시하였다. 스님과 재가자 21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임상에 필요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론과 실기 등 총22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제1회 청소년 율팍·댄스 꽃보다 10대 개최

꽃보다 10대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과 기성세대와의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꽃보다 10대, 제1회 청소년 율산 팍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경연자 10팀(66명)과, 관람객 200명 등이 참석했고, 대학원생들은 청소년 및 학부모를 위한 무료상담소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운영했다.



2천원의 행복 나만의 꽃밭 가꾸기

식목일 맞이하여 환우, 보호자, 직원, 봉사자를 위한 심신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외곽 화단에 나만의 꽃밭을 만들어 꽃을 심어 키워본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나만의 꽃밭 사진콘테스트, 사생대회, 시쓰기, 편지쓰기 등 계절별 상황별 관련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환우와 보호자, 사별가족의 영적돌봄의 매개로 활용할 계획이다.



함께하는 놀이마당

노래 한가락에 삶의 시름을 잊어버리고, 나의 신체 고통을 날려버린다. 노래와 함께 하는 그 공간 안의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어우러진다. 우리가 된다. 그 하나됨 속에 있음은 위로와 자신을 위한 배려다. 오늘 하루를 사는 의미가 된다. 환우, 보호자, 직원, 봉사자를 위한 심신치유프로그램으로 일청국악예술단, 시니어 손풍금 동아리를 초청하여 흥겨운 놀이마당을 열고 있다.



4월 24일 동작표현 예술치료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구를 통해 동작들을 표현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안내자와 함께하는 이들의 지지와 위로의 경험이 자기 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오고가는 거리가 멀어 힘들만도 한데, 예술심리치유공간 서혜인 대표는 늘 웃는 얼굴로 환우와 함께 해주고 있다.



어버이날 축하 한마당 & 예술놀이 한마당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김혜향 국악봉사단을 초청하여 국악 한마당을 가졌다. 그리고 일청국악 예술봉사단과 사랑샘공연단을 초청하여 입원 환우, 보호자와 봉사자들을 위해 놀이마당을 열고, 시니어 손풍금 동아리분들을 초청하여 놀이마당을 열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던 어르신은 일어나 춤을 추고, 팔이 불편하신 분들은 연신 발로 박자를 맞춘다.



Who?
One!

Who One | 누구나 하나 되는 방법

‘Who?’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이들에게.

‘One!’ 누구나 하나 됨을 실천으로 가르쳐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마음에 감사합니다.

후원자님들의 봄날 같은 따뜻한 마음이 정토마을을 화사하게 비춥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윤미자님, 김연순님을 비롯하여 많은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3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장에서 많은 후원자님들이 정토마을의 불교호스피스활동과 사업을 알리는데 힘써 주셨습니다. 숙식을 제공해주신 기원정사 설봉스님을 비롯하여 김상남, 안혜경, 박경순, 홍원심, 장안사 연꽃회 정진숙(혜인심), 이정희, 박현옥, 박연희, 유현자, 유현웅, 김서연, 김복래, 나덕형, 김순옥, 조재익, 이정옥(불심화), 노함선, 삼보사 동훈스님, 박복남(금강월), 변찬수, 이명자(대자운), 추재렬, 보장화, 선덕화, 우경희, 무명의 후원자님, 4일 동안 함께 부스를 채워주신 많은 후원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채소와 과일 등을 보시해주신 가락시장 김용화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3월

삼만후원 부인택 조옥선 이경이 박원철 강태식 이종훈 법열스님 (주)비에스산업개발 이유현 정원규
임수향 김윤주 백인숙 오연자 김경숙 전영춘 변순태 정동호영가 박금용 조재찬 김봉삼 전갑선 간근조
정미애 최아현 이경희 한백영 유문식 이복순 이경숙 권순옥 신인숙 김승은 김나리 노종수 권경민
손영숙

생일불공 조은진 박선영 다올커피 **일시금** 조원규 송안호 덕우스님 정묵스님 영우스님

복돼지 김석연 정종순 김희한 무명 **법화산림** 진선호/이수현 박정임 김혜경 신인경 서인선 전영춘

법당불사 김말순 김예진 박연주 박원철 박찬익 유양순 윤귀명례 윤묘애 이경숙 정희정

땅한편불사 김은순 김병갑 송진주 송진규(송봉관) 이서하 김정숙 일혜스님 서인선 권영천 강옥희
이승훈 이승준 이승건 권세진 김금순 김길홍 김남희 김말순 이재복 이성호 이성민 안외영 이유준
김민용 김봉삼 김영숙 김영주 동호스님 김옥순영가 박소연 이학렬(박정순) 방은수 법춘스님 서문규
이원조영가(손영숙) 수진스님 안명숙 안양사 양승진 우경희 이경용 이은규 이수복 이수자 김태우
(이영숙) 이유현 이재승 일영스님 임연자 장윤정 정석화 주태수 지문스님 이강산 진정남 이재원
차정희 최명이 최미영 탄호스님

4월

삼만후원 원복수 우종목 배동원 박미영 박진현 박찬홍 두선희 이은금 이연남 이상근 황상원(도순) 정
치연 김은순 엄윤금 류혜경 박재휘 전재호 최재권/마학림 금춘희

생일불공 조선용 조용훈 김귀식 **일시금** 임순덕 강희정 해원스님 송말자 송안호 무기명 **복돼지** 무명

법당불사 이순재 이계경 김영석 구분웅 한환희주

땅한편불사 이소령 안행진 백진호 무명 박일택영가 윤현종 박미정 조권재 김우현 지영희 서울국제
불교박람회 박찬홍 김동균 최미정 이순득 한환희주 박미정 조권재 이말순 김충웅 이순연 정신호 대
유스님 손군식 강은정 조병욱 김복숙 정수스님 김미향 이남이 이상용 김종진 정태숙 김신자 이권석
최용선 박중순 오광민 이미향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5월

삼한후원 이말순 임미정 여초롱 여영미 최봉희 김영식 이호근 강선자 김해수 성경애 정수경 김용주 안성미 강주현 이재성 김원희 김기옥 문쌍부 허선희 공덕조 유치영 김시연 김태련 박금란 최수혁 오용태 김명자 김화자 이종환 김진숙 김청자 박무자 유현웅 박순자 박병희 박정화 김정수 박미나 최일향 유경순 이인권 **생일불공** 이해영 **일시금** 무기명 박창죽 이순명 최상옥 김남숙 장지흥 성기순 **법화산림** 윤혜정 정원자 **의료기자재** 양은미 양재호 오재분 손정남 이수봉 이현주/정성훈 구경애 **법당불사** 이순재 강은경 이순자 박동관 후보민 박주홍 정귀연 곽은희 배원영 최봉희 **망한평불사** 강옥희 김명애 이복기 이영재 박병희 전태석 여태강 김종권 이지영 이상원 김진옥 김창범 지학스님 이윤창 지인스님 손말연 이종철 원호스님 김정분 탄호스님 강필구 김진숙 오지연 각주스님 조명제 박무자

물품후원자

여평스님(물티슈외 잡화), 연호스님(미나리,민들레 등), 엄정식환자(굴5kg), 법장스님(딸기2박스), 오리숫불구이(무10포대), 두레회(녹차김1박스), 박정립(오징어2박스), 박영자환자(굴20kg), 수자타(오렌지 등), 청제스님(탈수기, 딸기 등), 신옥주(쌀10kg3포대), 이지서(콩고기1kg5개), 수환스님(미나리20단), 이소련(딸기, 요거트), 성오스님(물미역30술), 청신암주지스님(썩떡3되), 현불회(생필품, 찹쌀 등), 부여 백운암주지스님(생표고버섯10kg), 다울커피(월1회 커피7봉지), 선금인(친환경세제11.2kg), 김정혜(타올15개), 추림스님(오렌지1박스 등), 강옥희(어묵4kg), 운문사(쌀200kg), 박춘규(기저귀 외), 범아스님(생필품 등), 일원스님(망고1박스 등), 안혜경(찹쌀), 영우스님(공양금200,000원), 만옥스님(요네뜨), 선우회(휴지2롤), 박민희(참나물 등), 윤정숙(두릅4kg), 진선화(소금20kg 등), 추재열(표고버섯), 금오암혜인스님(방풍나물9kg), 문수선원(미나리5단), 김화순(공양금100,000원), 정정화(공양금500,000원), 도진스님(다시마 등), 선화스님(마3박스), 서상인(딸기21통), 이유삼(돼지불고기10kg), 박금자(두리안 등), 김성희(파프리카1박스), 이영애(쌀20kg), 김태건(쌀60kg, 생필품 등), 김정순(건다시마5포), 문경미(오렌지캔6박스), 월빙마을(삼봉초분발200g100봉), 정법성(건고사리), 한국현(유기농현미5kg3포), 권철오(쌀20kg), 대원새검정콩 등, 연하심(찹쌀 등), 추재열(생표고버섯5박스), 대원행(건미역), 김연순(찹쌀), 이미경(잡화1박스)



연등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정토마을에 연등을 밝혀주신 많은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등을 밝혀주신 모든 분들의 소원이 성취되길 함께 발원하옵고, 밝혀주신 연등불사금은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중환자실을 증축하는 기금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에서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등 밝혀하신 그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호는 5월27일까지 마감하여 작성한 신규 후원자 명단이기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가을호에서 확인하시길 당부 드리며, 오타나 누락을 비롯한 후원문의는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로 연락바랍니다.



『자원봉사단체소식』



석남사봉사회

- 김희선 회장 외 회원 8명
- 매월 3주차 월요일
- 공양간 된장담그기 봉사



옥저나눔회

- 이명채회장 외 회원 10명
- 매월 3주차 일요일
- 병원 환우 기저귀 후원 150만원
- 미세먼지청소, 말벗, 식사보조, 환경정화 등



행복나눔

- 박지수회장의 회원 2명
- 매월 1주차 목요일
- 병원 환우 커트, 이발 등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서로의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토마을은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끌어집니다. 환우들은 자원봉사자의 미소에 기운을 내고 정토마을의 구석구석은 당신의 동참으로 밝혀집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단위 자원봉사 09:00~14:00, 13:00~17:00, 17:00~21:00

일일 자원봉사 10:00~17:00(주간), 20:00~익일 05:00(야간)

주간 자원봉사 주 1회

장기자원봉사



도움분야 | 비품관리, 병원 실내외 청소, 환우목욕, 방문객 안내 병원 안내, 도서 나눔봉사, 환우 수발라운딩, 환우들과 함께 산책, 치유방송 지원봉사, 행정지원봉사, 화훼(정원수 관리)

재능기부 | 임상기도, 임종돌봄(교육 이수자 가능), 집단·개인 공연(음악 악기 춤 등), 아로마치료, 이·미용, 물리치료 분야(카이로프랙틱, 온열 치료, 갈바릭 치료), 의사선생님 주말자원봉사(양·한방, 치과, 이비인후과)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전화 052)255-8408 / 010-6550-3565(김은구사회복지사)

보살도
菩 薩 圖

‘자기를 위한 수행이 곧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요,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의 도를 이롭게 한다.’

보살도는 자타의 일체감에서 출발하며 보살이 닦고 실천하는 수행의
길을 의미한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중생과
함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 코너는 여러분이 참여하여 만들어지는 코너입니다.

자재요양병원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한 위로편지, 기도문 등을 다양한 소재로
꾸미고 적어서 자르는 선에 맞추어 오려서 정토마을로 보내주신다면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이 될 것입니다. 보내주신 ‘보살도’ 편지는 소중한
환우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들과 내가 둘이 아님을,
내 마음에서 만들어 낸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짐에 망설이지 마시고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 052) 255-8588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재)정토사관자재회 / 담당자 : 임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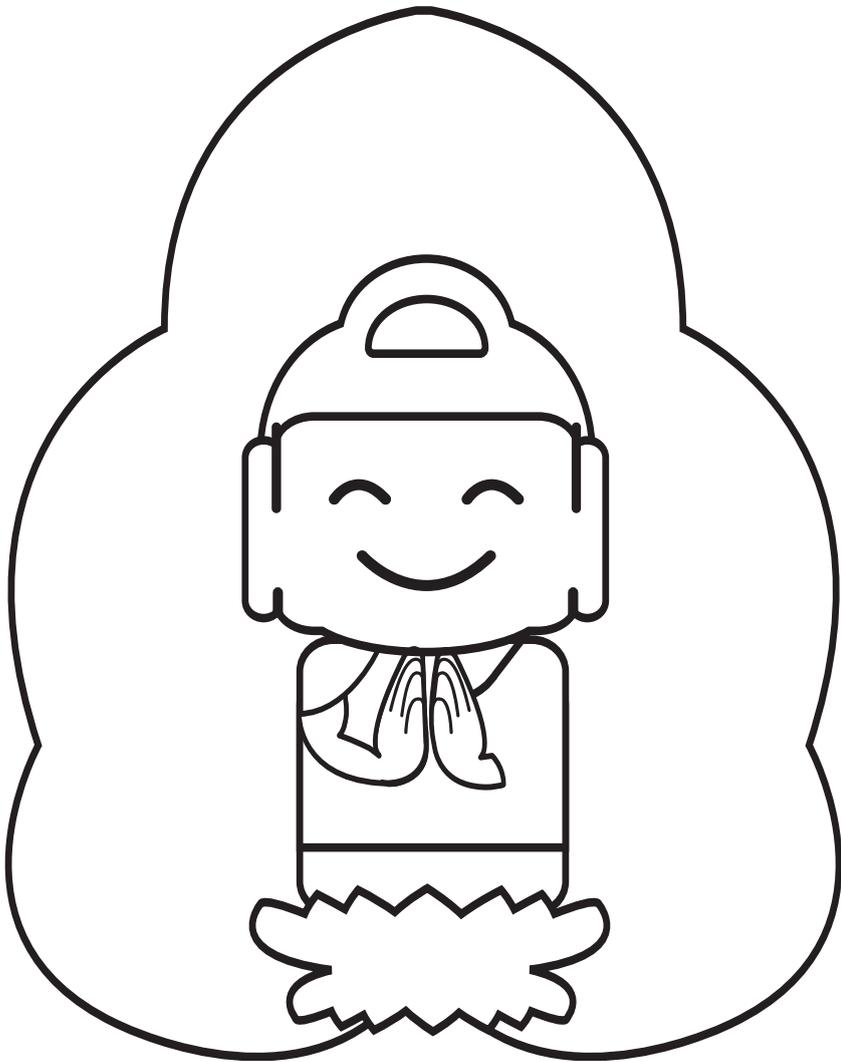




햇살의 미소로 그대 나를 맞이했나 봅니다

-아름다운 향기만 남을때까지

보살도 菩薩圖



Tip. 위의 그림을 참고하여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색칠해 주세요.
위의 그림과 다른 색을 칠하시면 더 좋죠. 개성이 중요하니까요!

보살의 마음을 직접 편지글로
다양한 완우들에게 전달해 보세요.



A series of horizontal blue dashed lines for writing.





알쏭달쏭

다른그림찾기



Tip. 다른 곳은 5곳
정토마을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HU>
6월 30일 정답을 공개합니다



선한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릴레이에
함께해요. 한 사람의 후원은 한 사람의
환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 기부금, 이렇게 쓰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
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기금으로 사용되
며 불치병 환자를 비롯한 암환자들의 재
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
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사
업 기금으로 쓰입니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후원자 함께 가꾸기 '1인 1만원 삼만후원자 운동 매월 1만원 1계좌 3만 후원자 운동

나눔동참

국민은행	713701-01-001909
농협	401131-51-080245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해외송금	kookmin bank seoul korea
계좌	713701-01-001909 (JUNGTOHOMAEUL)
접수방법	전화, 방문, 홈페이지 접수
전화	052-255-8588
팩스	052-254-2347
방문	울산시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재)정토사관자재회

www.jungtoh.org

※ 상세한 기부금 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염불선 수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의 나에게는 '쉽'이 필요합니
다. 그리고 삶 안에서의 기도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지친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염불선에 동참해보세요. 당신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7시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 1층 대강당

준비물 천주염주, 어깨담요, 물병

대상자 누구나 참여 가능(참가비 없음)

문의 052-255-8588(정토마을 법인사무국)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법당불사 모연문

삼천불 봉안 불사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질병과 만성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뜰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위안이 될 자재요양 병원 법당 불사를 통해 환우들에게 붓다의 가피가 햇볕처럼 부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미타불을 본존불로 모시고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삼존불과 삼천불(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을 조성하여 불자님 한 분 한 분의 뜻 깊은 서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수희동참으로 무무의 복전을 일구시고 이차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가득 한 삶을 살아가며 모든 생에 불국토에서 태어나기를 발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지친 환우와 그의 가족들에게 의지처가 되고 희망이 되고자 법당장엄불사를 서원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법당불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건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주와 수차례 협의하고 있었으나 무리한 땅 값 요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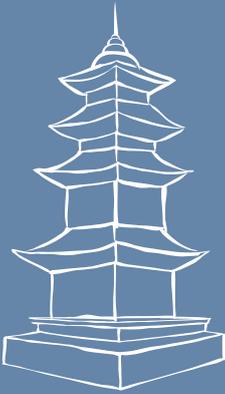
그러하여 땅1평 공양불사를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시고 동참해주신 결과 지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설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불보살님과 화엄성중의 가피라 여겨지고 그동안 한 분 한분들의 서원을 담아 원불을 모셔주시고 땅1평 공양불사에 동참해주신 정토가족들의 덕분입니다. 불사가 여법하게 회향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토가족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불사에 매진하여 환우들의 의지처가 될 수 있는 법당을 마련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존불 조성 | 아미타불 - 동참 500만원 이상
- 삼천불 원불 조성 |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 각 108만원
(일반 동참 10만원 이상)
- 입금계좌 | 농협 351-0487-2570-73 예금주 | 정토마을
- 전화 052-255-8586 팩스 052-254-2347 (화주 : 평등각)

법화산림 고승초청 천일기도 대법회

정토마을은 자재요양병원 건립불사를 시작하면서 정토마을 소의경전인 법화경의 천일기도 독송법회 입재를 2008년 11월 12일 정토마을 대법당에서 봉행하였습니다. 병상기부 동참 후원자님을 위한 '법화경 천일 철야기도'는 2011년 8월 27일 첫 회향을 하였고,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법화경 기도'와 정초 '법화경 독송 장좌기도'를 하면서 정토마을은 법화 도량으로 자리하였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많은 후원자님들의 염원에 보답하고자, 큰스님들을 모시고 법화경 강설을 들으면서 신심을 다지는 기도수행과 법회의식을 매월 봉행하고 있습니다. 정토가족 여러분을 '법화산림 고승초청 천일기도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일 시 6월 28일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 9시: 불공, 10시: 법문, 오후1시~5시: 법화경 독송 및 축원)

초청법사 삼보사 주지 동훈스님

장 소 정토마을 대법당

동참금 천일기도 동참금 108만원(매월 3만원 분납 가능)

계좌 농협 401131-51-081662 / 예금주 (재) 정토사관자재회

문 의 052) 255-8588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 7~8월 초청법사가 궁금하시면 정토마을 법인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창립 6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호스피스의 불교적 영적돌봄』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에서는 『호스피스의 불교적 영적돌봄』을 주제로 창립 6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랍니다.

일시 2015년 10월 16일(금)

장소 충북지역 예정

문의 052)255-8530





완화의료중심 정토자재요양병원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진료의료 서비스

- 내과,외과,한방과 - 양 · 한방 협진진료
- 양방특수요법 | 항암면역증강요법, 항산화요법, 미술투주사, 메가비타요법, 마이어스 칵테일 주사 등
- 한방요법 | 부항요법, 한방뜸요법, 각탕, 전침, 약재치료, 기력증진요법, 해독정화요법, 면역증강요법
- 보완통합진료요법 | 통합재활클리닉, SCIO치료, 뇌훈련프로그램, 자기면역자연치유클리닉, 통합치유클리닉, 난치병 완화 클리닉

특화치유 서비스

- 예술융합치유 | 음악, 미술, 요가, 춤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심신 치유와 자기 성장을 만들어가는 자기융합의 행복한 과정 경험
- 다산식이치유 | 힐링푸드 다산식이치유연구소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식단을 통하여 환우의 심신을 정화하고, 약물 복용으로 인한 독소를 자연적으로 치유
- 임상전문 상담치유 |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조절과 적극적인 영적 돌봄을 통한 치유, 임종기도와 의식을 통한 편안한 여정으로의 동행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의료기기 모연

자재요양병원 환자들의 건강 돌봄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의료기자재와 의료기기' 모연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주시면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
입금계좌
안내

농 협 : 815039-51-038048 (정토사관자재회)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아정길 216-39

전화 : 052-255-8588 팩스 : 052-254-2347

홈페이지 WWW.jungtoh.org

자재요양병원 한방
약제실 직접제조

자재공진단



공진단

각종의서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명약으로, 동의보감에서는 몸의 진기를 든든히 하여 신수와 심화가 잘 오르내리게 하고 오장을 보강하며 노화를 방지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보약으로 공진단을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재공진단

최고급 등급의 사향이 일반 공진단의 2배로 들어가서 공진단의 해울, 행기의 효능, 보기혈 효능이 극대화되며, 면역력과 기억력을 좋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능을 가진 원지, 석창포 등의 약재를 추가하여 집중력 강화, 뇌기능 활성화 등의 효능으로 치매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환절기에 맞춤 제조된
자재요양병원

한방약첩 세트



피로회복제 1팩 | 4,000원

녹용, 인삼, 백출, 황기 등 원기회복에 탁월한 10여 가지 한약제로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생맥산 3팩 | 4,000원

여름철 원기회복으로 좋은 생맥산은 더위를 예방하고 식욕을 증진시켜줍니다. 원기가 부족하거나 식욕 부진할 경우,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려 기운 없고 맥이 약한 경우, 일사병, 열사병에도 좋습니다.

총명탕 3팩 | 4,000원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건망, 치매 등의 병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사회 활동의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기억력 감퇴와 학습능률 저하 및 중년여성의 건망증과 노인들의 치매 예방 및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수험생의 학습증진에도 좋습니다.

나에게 일주일의 휴식이 주어진다면

생사의장

교육 목적 : 생사를 인생이란 한선에 놓고 현대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발견하게 하는 장

교육 기간 : 2015년 8월 2일(일) ~ 8월 8일(토) 6박 7일

교육 대상 : 사부대중

교육 정원 : 45명

교육비 : 80만원
농협 351-0587-2656-13 마하보디교육원

접수 마감 : 2015년 7월 20일(월) 도착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사진(3x4) 1매

접수방법 :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접수문의 : TEL 052)255-8521~8522 FAX 052)264-0209
E-mail mahabodhi@daum.net www.mahaedu.org 통합캠퍼스 마하보디교육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교육원

주관·주최 : 마하보디교육원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아미타호스피스회

www.mahaedu.org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Mahbodhi Meditation Psychology Graduate School

2015학년도(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석사과정(전공.명상심리학) 0명 / 개강 9월 4일 (금)
임상상담전문가과정 0명 / 개강 9월 5일 (토)
- ◇접수기간 : 석사과정 2015년 6월 22일 (월) ~ 7월 1일 (수)
임상상담전문가과정 2015년 7월 1일 (수) ~ 7월 31일 (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 ◇입학문의 : 교학처행정실
T. 052-255-8521,8523 F. 052-264-0209 M. 010-4656-0180
E. mahabodhi@daum.net 통합캠퍼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자재병원에 법당이 없어요? 땅 한평 공양 불사

후원자들의 따뜻한 가슴이 모여 오늘의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환우와 보호자들이 부처님께 기대 아프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법당건립을 위해 땅 1평 공양불사를 발원합니다.

현재의 정토마을 건축부지로는 삼존불과 삼천불을 조성하는 법당 불사에 턱없이 부족하며 무리한 땅값 요구로 법당 공사 착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1평 공양불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 마음의 꽃밭을 가꾸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뜻 깊은 서원을 한 곳에 모으고자 합니다. 땅 1평 공양금은 1인 30만원이며, 일시불 또는 3회 분납으로도 공양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일시불 입금계좌 (분납가능)

농협 351-0487-2570-73 예금주 : 정토마을

전화 052) 255-8588

팩스 052) 254-2347 (화주 : 평등각)

※정토마을의 후원과 불사에 동참하시면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이사장 **능행** 합장

